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연합 뉴스]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매일 경제]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전자 신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멘토링 사업 결과 5점만점에 4.7점](#)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4/11/21 11:26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술멘토링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사업의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사업. 9개 출연(연) 소속 11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48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7개 기업의 CEO 또는 CTO들이 멘토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개 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제품을 판매해 총 403억 원의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 기준 4.7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97%로 나타나는 등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대경이엔씨와 (주)에스이랩 등이 꼽혔다.

(주)대경이엔씨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개발하는 중 보행자 인식 영상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KIST의 지원을 받아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주)에스이랩의 경우 원격기상관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으나 기기불량으로 인해 관측기회를 놓치고 점검 출장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보완 관련 자문을 통해 불량률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석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R&D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 참여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1/21 11:2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4.11.21 11:26:16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술멘토링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사업의 성과보고회가 열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사업. 9개 출연(연) 소속 11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48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7개 기업의 CEO 또는 CTO들이 멘토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개 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제품을 판매해 총 403억 원의 매출증가를 기록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 기준 4.7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97%로 나타나는 등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주)대경이엔씨와 (주)에스이랩 등이 꼽혔다.

(주)대경이엔씨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개발하는 중 보행자 인식 영상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KIST의 지원을 받아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주)에스이랩의 경우 원격기상관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으나 기기불량으로 인해 관측기회를 놓치고 점검 출장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보완 관련 자문을 통해 불량률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석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R&D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 참여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mj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멘토링 사업 결과 5점만점에 4.7점

[2014년 11월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 성과보고회가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자들이 멘토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다. 9개 출연연 소속 11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48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했다.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4.7점으로 나타났다.

KISTI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대경이엔씨와 에스이랩을 꼽았다.

대경이엔씨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개발 중, 보행자 인식 영상처리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멘토링 지원을 받아 제품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대전시와 시범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KIST의 BPK 과제에 선정돼 향후 6개월 동안 기술상용화를 위한 추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에스이랩은 원격기상관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으나, 기기불량으로 인해 관측기회를 놓치고 점검 출장을 반복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 한국천문연구원원의 지원으로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보완 관련 자문을 통해 불량률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원격관측시스템 운영기술도 확보했다.

석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R&D 고급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 참여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에도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